

buddhanews.com

자기 자성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자기 생명의근본

25면에서 계속

만물이 하나로 연결됨을 느끼게 돼

☞ 스님께서도 자주 전기와 전구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 방 안에 딱 누워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보니 갑자기 스님 말씀처럼 '아, 저 형광등이 전기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만물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구나.' 하고 아주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 아들녀석이 요즘 자주 반항을 해서 제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 이제 확실히 하나하나 연결된 그 자리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제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 네. 그런데 그 형광등을 보지 마시고 그 불 들어온 자체를 보세요. 불 들어온 그 자체. 그 선 줄 하나에 그 전체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 전체가 다 밝기 때문에 이 밑의 전체가 또 밝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 구질구질한 말 할 게 없이, 즉석에서 우리는 불교기를 해서 먹는 썰인데 즉석에서 배우지 못하면 요다음에도 무쇠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자리는 부처님의 진리의 그 포괄된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강석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걱정할 하면 이진 소인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소소한 거 가지고 이리다가는 오히려 큰 금강석을, 전체의 포괄된 금강석을 하나 잡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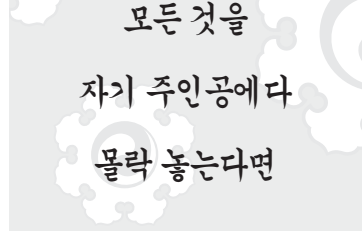
이 세상에는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는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개별적인 마음이라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 텐데 포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도리를 모르는. 이거 하날 쥐지 못하고는 여기에 연결된 거를 도대체 모르니까, 이게 부처님의 이름이 부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전체에 포괄된 하나의 기둥이다 이거죠. 기둥인데 그 기둥도 자주, 여기 선조대만 썼지 바람 부쳐도 있고 불 부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부쳐라고 내세울 게 없거든요. 왜냐? 시시각각으로 이거는 배를 타고 갔을 때는 바람님이 필요하고 물님이 필요하죠. 땅으로 다닐 때는 땅 부쳐도 필요하고 사람 부쳐도 필요하고 짐승 부쳐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 이진 때에 따라서 그냥 연결해서 자주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걸 부쳐라고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부처다 이겁니다. 이게 생활에 우리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생, 전생 아주 통틀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해도 '왜 이래, 응?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 하면 바로 그 타의에서 괴롭히는 그 마음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선줄이 다 닿기 때문에 '아이구,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서 서로

가 마음을 융합해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써 현상으로도 편안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하게 칼로 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어야죠.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는데 나라고 세우지 않는다면 거기서 반항을 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나라고 세우질 않는 것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 벗으려면...

☞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나요? 요즘 같이 이렇게 먹고살기도 버겁고 힘든 세상에 스님께서서는 어찌 삶은 고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 마음도리를 잘 모르지만 이제 관심을 가져 보려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삶의 이 무거운 짐들을 벗을 수 있겠습니까?

☞ 여러분은 여러분의 근본이라는 그 자체가, 자기 자성이 바로, 자기 주체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세상이 벌어지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몸속의 생명들이 전부, 여러분이 움직여주는 것도 다 거기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질서정연합니다. 내가 해야 내가 갖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행복한 거지 남이 행복한 걸 갖다 주거나 뺏아가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배우르게 밥 먹여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똥 누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신 또 잡을 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파 주고 죽여 주고 깨달아 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홀로 와서 홀로 해야만 할 문제는 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길에서 길을 찾는다는 격도 있지요. 길은 육이 다니는 길이고 마음이 다니는 길은, 길 아닌 길이어든요. 가고 읊이 없이 가고 오고.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도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고 오셨지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이 맞습니다. 짊어지고 오시진 않았을 텐데, 한 발짝 한 발짝 딛고 왔는데 그 발자국 떼어 놓은 것은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졌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피는 데, 모두 생활하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삶은 고가 없다' 여러분의 생각이 모자라서 팔자 운명이라든가 고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현명하다면 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거를 나라고 세울 게 없고, 내가 했다고 할 게 없고, 내 몸이 있다고 할 게 없고, 모두가 침보해서 더불어 같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물한 그릇을 먹었을 때도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차원을 좀더 삶의 차원과 인생의 차원, 또는 우주 삼라만상의 차원, 모든 것을 결부시켜서 차곡차곡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신다면 그게 지혜로워지고 바다와 같아져요. 그럼으로써 어떠한 여건도 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신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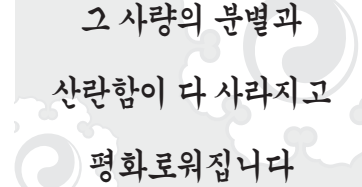
여러분의 자성신 즉, 주체, 자기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일련 쉽게 말해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썩어 있는 것이지 그 썩어 딱 이름과 형상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에너지를 주시오.' 하고 열 써 보더라도 에너지가 그리로 안 가요. 자기 뿌리에서만이 에너지가 올라오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허허바다를 건너가는데 선장은 본체만체하고 자기네들끼리 배를 타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그냥 뒤집히겠지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신의 이름을 다 불러 대고 아단법칙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모든 마음은 선정한데 다 맡겨 놓고 이렇게 좌왕우왕하지 않고 한군데 한마음으로 맡겨 놓는다면 가는 데까지는 무난히 배가 뒤집히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항상 그저 의식에서 나오는 거, 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유전성이든 영계성, 업보성, 인과성, 세균성 이런 것이 툭툭 튀어나오는 원인이 어딴는가? 여러분이 진짜로 그렇게 내 썩이 내 뿌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너만이 썩을 푸르게 살게 할 수 있어.' 하고 관찰 때에 그것이 관하는 대로 대뇌로 통신도 돼 가지고 대뇌에서 사대로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음의 빠른 이차관, 통신처리는 것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대로 통신이 되면 즉시 어디로 가느냐? 정수로 올라갑니다. 정수로 해서, 정수는 뭘 뜻하느냐?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성의학이라고 해도 되고, 심성과학이라고도 해도 되고, 심성 전체물리학과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긴 하지만 진리를 참구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갖추어 가지고 여여하게 살 수 있

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가 있지요. 예전에 육조 스님은 "내가 불성이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 어찌 알았으리까. 또는 불성이 있는 까닭에 갖추어 가지고 있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있는 까닭에 만법을 들이고 낼 줄 어찌 알았으리까. 불성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자유자재하는 줄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면서 인간이 그냥 먹고만 살면 그냥 제인인 줄 알지 마시고, 누가 굶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런 자기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즉 말하자면 속해 있는 거지



요. 그래서 자기 거라고 생각이 안 된다면 이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천차만별의 생명들, 인간까지 살아가는 그 원리를 다 알게 됨으로써 모든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데 그 하나마저도 없이 그나마 여여하게 돌아가는구나, 초월해서.' 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게 된다면, 자기 뿌리가 자기 불성이라는 거,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자아 부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만 아파도 '오직 너만이 나게 할 수 있어.' 하면 의사가 돼 줍니다. 또 '너만이 이 가난한 거를 좀더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아요?' 하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보디가드도 돼 줄 수 있고 이끌어 주는 길잡이도 돼 줄 수 있고 해결사도 돼 줄 수 있고, 모든 게 돼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자기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다 조절해 주듯이 그렇게 자기 주인공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주인공, 내 불성은 다 뺏겨지고 그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신이 없다면 자기 몸뚱이는 나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송장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근본이 빠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변연히 그렇게 말면서도, 왜 그 썩은 진실된 자기 뿌리

를 의지해서 진짜 푸르게 살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진짜 네 주인공을 내가 믿고 정말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름만 '주인공! 주인공!' 부르지만 진짜로 믿지 않아요. 자기를 자기가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어요? 이 세상에 누가 대신 살아 준다고 믿습니까? 자기 자성이 자체가 바로 영원한 자기의 생명의 근본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고라고 무겁게 짊어지지 마시고 일체를 영원한 자기의 근본 자리에 맡겨 놓고 나는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는 무료 시작해서 무료 끝난다는데...

☞ 제가 아는 어느 기독교인이 불교는 무조건 무료 시작해서 무료 끝나는 종교가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스님께서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 그런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가 왜 무라고 그랬느냐. 물감이라는 것은 한잔에 색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물감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이 색도 쓰고 저 색도 쓰고 이 색도 쓰듯이 우리도 어머니를 만날 때, 동생을 만날 때, 형님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각각 이렇게 마음을 자연스럽게 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쓸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쓰니까 무(無)라고 했던 겁니다. 즉 평등공(平等公)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여러 가지가 고정됨이 없이 쓰니까 이걸 평등하다 해서 평등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있다 없다고 할 때의 없을 무가 아니에요. 너무 꼭 차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이것도 됐다 하지만 이진 평등공이다 이겁니다. 나조차도 한 공(空)이기 때문에 '무(無)'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無) 하나에서 수만 가지가 거기서 소생되는 겁니다. 나고 죽고 나고, 생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종합해서 주인공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전체 진리가 '너가 있으니까 주인이 되고 너가 있으니까 바로 공이다. 그러니 거기다가 몰락 놔 버려라. 네가 하는 거조차 놔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본래는 내가 빈 공에서 왔기 때문에, 온 것도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공이란 말입니다. 나조차도 공인데, 공에다가 넣을 거는 또 어딴으며 뺏 가는 어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하는 것이 전부 공했는데 공에다 또 넣으라니 이진 어찌가 있는 말이지마는, 모두 그렇게 공에서 돌아가고 여여하게 살면서도 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빈 껍데기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료 끝난다고 할 수가 있나요? 자기가 엄연히 살아서 움직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아야죠.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율담, 천삼무, 오가피 그의 100가지 보유

다마스님

-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KG 빠짐) - 칠선초 ₩88,000
-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항버섯, 100% 확실 ₩87,000
-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85,000
-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86,000
-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특수비방) ₩88,000
- *만성변비 -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는 분 ₩80,000
-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85,000
- *어린이, 학생, 성장발육 - 만병초, 녹용, 차기버섯 38가지 ₩150,000
- *각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항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 *여자가 얼굴이 예뻐질 때 기미, 주근깨, 화장독 제거 - 영능향 삼매자(희귀약초) ₩88,000
-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 보약 - 키가 쑥쑥 자람, 공부 잘할 체력유지 ₩88,000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 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한방(韓方)치료로

간질(癲) 백반증(백납) 개선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F

"대한한 의사 협의 의료광고 심의필"

"제 090226-중-482"

범음범패 학인모집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이 있는 출가 수행 승려와 재가불자님께 수강생을 모집 하고자 알립니다

- ◆ 자 격 : 1. 삭발의의한 출가승려 2. 불교와의 특별히 인연이 있는 분 (재가불자)
- ◆ 교육기간 : 1년과정 (초급반 : 6개월과정)
-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의식

1. 각종 전문 재의식	4. 사다라니바라
2. 사물 다루는법	5. 오공양작법
3. 천수바라	6. 요잡

- 불교의식무용반 : 선화무, 액원무, 학춤
- 연구반 : 산정사범음범패

- ◆ 수 강 일 : 매주 화요일 개강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 ◆ 수 강 료 : 월 10만원
- ◆ 교육장소 : 전통사찰 안정사 교육원(강원) 승현스님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1888번지)
- ◆ 문의전화 : 055)649-6711, 010-8533-6775 팩스 055)649-6712

전통사찰 안정사 범음범패 영산재 보존회

전통범음범패(바라, 나비작법)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 범패 교육원에서 2009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 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기초과정 (2개월)
 - ◆ 송주 : 도량성, 종송 등
 - ◆ 예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 관공 : 상보통청, 상단 : 종단관공, 각단불공, 오령, 목탁
 - 나. 전문과정 (4개월)
 - ◆ 시련, 대령, 관공, 용호계(신중적법 104위), 지장정, 시랑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만, 화엄시식, 구명시식, 불승편
 - 다. 고급과정 (6개월)
 -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송, 요잡작법
 -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대령소), 전통의식타법
 - ◆ 특 강 : 패불이온 종사이온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대비), 예수재의식 등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 입학식 : 2009년 3월 5일 오전 11시
 - ◆ 개 강 : 2009년 3월 5일 오후 1시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 범패 교육원